

## 중국인들 시나브로 전남 땅 사들인다

여수·순천 등 4년새 3배 급증  
아파트·단독주택 등에 관심

중국인들의 전남 토지 구매가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이어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인 등 외국인들은 전남에서 공장용지보다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구매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 취득 토지는 4375건에 3785만 4719㎡로, 전남도 전체 면적(1만2312.92㎢)의 0.3%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보면 2조2369억3000만원 어치다. 외국인 토지취득 가운데 개인으로는 미국교포가 1627건에 1035만7014㎡, 법인 중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기타합작법인이 625건에 1865만3656㎡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이 전체의 76.63%를 차지하고 있다.

4년 전인 2012년 6월 말과 비교하면 외국인 취득토지 건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과 금액이 모두 감소했다. 4년 전 외국인 취득 토지는 4029건에 3878만7906㎡, 모두 2조2634억8500만원 어치였다. 93만3187㎡(265억5500만원)가 줄어든 것이다.

외국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335건(1485만826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06건), 중국(397건), 영국·프랑스·독일(158건)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인 등이 전남 토지를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 있는 반면 중국인들의 전남 토지

취득은 4년 전인 2012년 135건에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이어 토지가격이 저렴한 전남지역을 새로운 부동산 구매지로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최근 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토지였다. 특히 아파트는 2012년 158건을 소유하는데 그쳤으나 4년 만에 586건으로 증가했으며, 단독주택 역시 192건에서 251건으로 늘었다.

외국인 취득 공장용지와 상업용지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들이 공장용지나 임야보다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3월부터 3개월간 외국인들은 전남도의 토지 109건(12만9902㎡)을 구입했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가 37건(2만8665㎡)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21건), 상업용지(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장용지 취득은 없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5건(229㎡) 등 40건(11만149㎡)의 토지를 처분했다.

시·군별로는 여수, 해남, 진도 등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가 많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취득 전남 토지 상당수는 주로 교포들이 상속이나 매매 등을 통해 오랜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장용지가 최근 주목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단독주택 소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80년 5월의 모습 그대로 2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녹두서점'을 재현한 '녹두서점-산자와 죽은자, 우리 모두를 위한'의 작가 도라 가르시아와 녹두서점 주인 김상윤·정현애 부부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녹두서점, '5·18 기억의 책장'을 펼치다

광주비엔날레 D-3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서점 주인 김상윤·정현애씨 만남

전봉준 액자·책·태극기 등 재현...“기억 속에서 불러내줘 감사”

1977년 광주 계림동에 문을 연 '녹두서점'은 사회 운동의 본거지이자, 5월 항쟁의 주요 거점이었다. 지난 2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35년만에 '녹두서점'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서점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붉은 전봉준 액자, 서점에서 함께 읽으며 공부했던 책들이 꽂힌 책장, 태극기가 덮인 관, 바닥에 관처럼 짜 넣은 책꽂이 등

이 인상적이다. <관련기사 18면> 광주비엔날레(9월2일~11월6일) 화제작 중 하나인 '녹두서점 : 산자와 죽은자, 우리 모두를 위한'의 스페인 작가 도라 가르시아와 당시 녹두서점 주인 김상윤(운상원열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정현애(전

광주시의원)씨가 첫 만남을 가졌다. 김씨 부부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도라 작가는 “녹두서점은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술한 토론이 오간 지식과 공동체의 장소였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처럼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행진하고, 소통하고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낸 공간이라는 점에서 작품 소재로 삼았다”고 말했다. 작가는 또 “이번 작품을 통해 5·18을 넘어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비극과 그것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애씨는 “27일 새벽, 우리 모두가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며 “오랜 세월이 지나 녹두서점을 다시 기억 속에서 불러내준 게 경이롭고, 작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작가는 30·31일 '사진과 활자 : 대자보 워크숍'을 개최하며 김상윤 부부의 '녹두서점 토크'(31일)도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왜? 문화전당장 공석으로 두나

2차 공모도 무산...10개월째  
정부 문화수도 무관심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장 2차 공모까지 무산시키고 3차 선인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지역 사회에서는 문화전당 컨트를 타워를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는 것은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지난 6월에 실시했던 문화전당장(전문 임기제 가급) 2차 공모에서 적격자가 없어 오는 10월 초 3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서류·면접전형

을 거쳐 2명을 임명권을 보유한 문화부에 올렸으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현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현안을 감안, 오는 10월1일 문화전당장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계의 한 인사는 “오는 11월이면 공식 개관 1년인데도 정부가 문화전당장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방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문화전당 개관 이후 전당장 선임을 서두르지 않다가 올 3

월에야 전당장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적격자가 없으며 이를 무산시켰고, 지난 6월에 실시한 재공모도 같은 이유로 선발 절차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당장 선임을 바라는 광주지역 사회 여론을 고려하고 문화전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는 전당장을 선임하려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문화전당을 제대로 운영할 인사를 뽑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김영란법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 확정

차관회의, 원안대로 결정

정부는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

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6 명량 대첩축제

The Great Battle of Myeongnyang Festival

## 9.2 - 9.4 일

### 해남우수영을돌목 일원

**주최** | 전남도, 해남군, Jindo 진도군

**주관** |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의료, 한국관광공사

시각	내용
09:00 - 09: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식
09:30 - 10: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공연
10:00 - 10: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0:30 - 11: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1:00 - 11: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1:30 - 12: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2:00 - 12: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2:30 - 13: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3:00 - 13: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3:30 - 14: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4:00 - 14: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4:30 - 15: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5:00 - 15: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5:30 - 16: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6:00 - 16: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6:30 - 17: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7:00 - 17: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7:30 - 18: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8:00 - 18: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8:30 - 19: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9:00 - 19: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19:30 - 20: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20:00 - 20: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20:30 - 21: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21:00 - 21: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21:30 - 22: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22:00 - 22: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22:30 - 23: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23:00 - 23:3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
23:30 - 00:00	명량대첩 400주년 기념행사